

제 105 호
2023년 4월 17일



보라매



발행처 : 대한민국공군전우회, (사)공군발전협회
Homepage: www.airforce.ne.kr / www.arokaf.co.kr

발행인 : 김은기
E-mail: kafva-airforce@naver.com

편집인 : 염규열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92
전화: 02-825-8461 FAX: 02-825-8460

공군전우회 2023년도 정기 총회



공군전우회 중앙회는 3월 9일 공군호텔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를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역대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정책자문위원, 산하/협력단체장과 임원, 중앙회 정회원, 국내 각 지부/지회장과 임원 및 수상자 가족 등 약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대국민 봉사 및 지원 활동에 기여한 공군현역 2명에게 보라매상과 상금 100만 원씩을, 공로상, 자랑스런 공군인상, 자랑스런 장한어머니상 및 공군참모총장의 감사패 수여가 있었다.

이어 김은기 회장의 인사말과 회무보고가 있었으며 박 병철 감사의 감사 보고 후, 심의의결 안건으로 '2022년도 수지 결산안'과 '2023년도 사업계획/예산안'에 대한 인준 이 있었다.

이후 공군가 제창을 끝으로 1부 행사를 마쳤다. 김 회장은 개회 인사말에서 "그동안 글로벌 복합위기 여파로 국내외 경기침체 등 미래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어려움속에서 공군전우회가 비록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각종 계획된 사업들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금년에도 공군전우회는 공군의 현안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가용역량을 동원하여 측면 지원을 다할뿐아니라, 회원간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전 우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부 행사는 공군본부에서 준비한 '공군정책 소개' 영상 시청 후 만찬 및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수상의 영예를 안은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수상자 명단

○보라매상

공군대령 최성환(공군본부 우주센터), 공군중사 권동엽(공군항공안전단)

○공로상

송경종(공군전우회 이사), 엄기호(공군부사관전우회 부회장), 김재학(양평지회 사무국장), 최용주(인천지부 지부장)

○자랑스런 공군인상 : 서영득(공군학사장교회 회장)

○자랑스런 장한어머니상 : 손이분, 오경희(공군순직조종사 부인회)

○공군참모총장 감사패

남상석(대구지부 지부장), 유재은(부산지부 부지부장)//

원중식 소령 '2022년 공군 최우수 조종사' 영예

F-15K 전투조종사 원중식 소령이 '2022년 공군 최우수 조종사' 타이틀을 차지했다.

지난해 공군에서 가장 빼어난 활약을 펼친 조종사가 된 원 소령은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공군은 4월 4일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정상화 참모총장 주관으로 '2022년 최우수 조종사 시상식'을 개최했다.

공군 전 비행대대의 조종사를 대상으로 하는 최우수 조종사는 한 해 동안 비행시간, 특수자격, 전문교육 등 비행경력과 작전 참가 횟수, 비행·지상 암전을 포함한 전문지식, 체력 등을 평가해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해 선발한다.

원 소령은 892.6점을 획득했다. 지난 2011년 공군사관학교(공사) 59기로 임관한 원 소령은 1580여 시간의 비행시간을 보유한 베테랑 조종사다.

지난해 12월 말부터는 공사 생도대 1중대장 직책을 맡아 정예 장교 양성에 힘쓰고 있다. 한편 분야별 최우수 조종사 3명은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전투임무 분야는 38전투비행전대 KF-16 조종사 권오현 소령, 비행교육 분야는 1전투비행단 T-50 조종사 박상수 소령, 기동통제 분야는 6팀색구조비행전대 HH-47 조종사 조성모 소령이 선정됐다.//



공군전우회 회장단 간담회



본회 김은기 회장은 2월 15일 참석이 가능한 본회 부회장 10명을 초청하여 공군호텔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는 금년도 본회 주요행사 계획에 대한 부회장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본회 활

성화 방안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 회장은 “작년도에 공군전우회는 부회장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계획된 사업들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52기 공군항공과학고 졸업 및 임관시 보라매상 시상

본회 김은기 회장은 2월 22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열린 제52기 공군항공과학고(이하 항과고)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하여 이성진 학사에게 공군전우회상인 보라매 상장 및 부상과 메달을 직접 걸어주며 격려했다.

이날 공군교육사령관 주관으로 임관자 가족과 친지, 교육사 장병들과 재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52기 항과고 졸업 및 임관식’에는 136명의 신임 부사관들이 지난 2020년 항과고에 입학해 고등학교 정규과정은 물론이고, 항공기술 전문교육을 이수



했다.

이날 임관식은 졸업증서 수여와 임관사령장 및 계급장 수여, 시상, 임관선서 등으로 진행됐다.//

공군발전협회 항공우주력연구원 신년 정책간담회



공군발전협회 부설 항공우주력연구원은 2월 1일 공군항공안전단에서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등 현역과, 항공우주력연구원 고문·자문위원 및 연구위원 등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신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책간담회는 김은기 공군발전협회장 환영 인사말에 이어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의 공군 핵심현안 설명 및 질의 응답이 있었다. 이어 윤우 항공우주력연구원장의 ‘항

공우주력연구원의 2023년 활동계획’ 발표가 있은 후 자유발언 및 토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은기 회장은 “여기에 함께하신 분들은 모두 공군과 발전협회를 사랑하시는 것은 물론 그간 많은 것들을 이루시고 지금도 하시는 일들을 통해 자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발표되는 발전협회 활동계획에 대해 많은 가르침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군발전협회 국회 항공우주력 발전세미나



정우택 국회의장, 성일종, 하영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 후원하며, (사)공군발전협회 항공우주력연구원 및 (사)국방마이스연구원이 주관한 국회 항공우주력발전세미나가 4월 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새로운 위협과 항공우주력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관계관 약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제1부 행사로 국방마이스 배순근 원장의 주관하에 김은기 공군발전협회장의 개회사, 정의택, 성일종, 하영제 국회의원의 환영사,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사장, 국방정책실장 등 3명의 축사에 이어 조황희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장의 기조발표가 있었다.

제2부 행사는 윤 우 공군발전협회 항공우주력연구원장의 주관하에 양 우(아산정책연구원) 강경인(KAIST), 김근원(국방부 미사일우주정책과장) 및 김지홍(KAI 미래융합기술원장) 발제자들의 발표가 있은 후 발제자와 토론자인 곽신웅(국민대), 유용원(조선일보)과의 종합토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우주항공청설립’ 추진을 앞둔 시점에서 항공우주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부처간 의견을 좁히고, 산(産), 학(學), 연(研), 군(軍)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공군순직조종사부인회 회장단 내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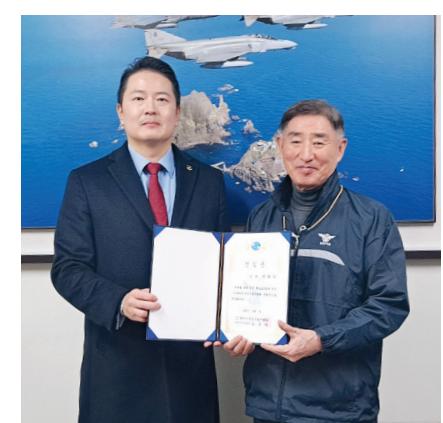
공군순직조종사부인회(이하 순조회) 송우영 회장을 비롯한 3명의 회장단이 1월 9일 본회를 방문하여 김은기 회장과 환담을 나누고 오찬을 함께했다.

순조회 송 회장은 순조회 활동현황 및 운영상 애로사항 등을 소개한 후 “순조회를 위해 항상 높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는 공

군전우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본회 김회장은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중에도 순조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회장단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애로사항 등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순조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군발전협회, 이원익 부회장 선임증 수여



공군발전협회 김은기 회장은 1월 11일 이원익 다쏘시스템코리아 공공부문 대표를 공군발전협회 부회장으로 선임하고 이 날 선임증을 수여했다.

신임 이 부회장은 공사 19기 이송호 예비역 대령의 아들로 어렸을 적부터 부친의 주기종인 F-5항공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 ‘대한민국공군 F-5’라는 책을 발간한 바 있다.

본회 김 회장은 “평소 공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에 고맙다”고 하면서 “공군과 공군발전협회 발전을 위한 이 부회장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영하 회원, 경기 PEN 문학 작품상 수상

본회 이영하 회원 (예 중장, 공사 22기, 전 공군발전협회 항공우주력연구원장)이 1월 13일 수원 화성박물관에서 개최된 2022년도 국제 PEN한국본부 경기지역위원회 주최의 2022년도 (제13회) 경기펜문학상 시상식에서 시(詩) '봄이 오는 길'로 작품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제펜한국본부 경기지역위원회는 회원 900여명이 가입되어 있는 경기권 지역위원회의 문인단체이다.//



공사총동창회, 청운보육원에 후원금 전달

정경두 공사총동창회장 등 임원 3명은 3월 20일 서울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청운보육원을 방문하여 2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청운보육원은 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고아, 기아, 결손, 빈곤가정의 아동에게 자립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로 보육원생은 총 57명이며 정부지원금만으로는 운영비가 부족하여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군 ROTC 장교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공군 ROTC 장교회는 2월 24일 공군호텔에서 회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정기총회 및 창설 51주년 기념행사 그리고 회장 이취임식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회무보고와 2022년도 결산안, 2023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및 차기회장 인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어서 공군 ROTC 장교회 창설 51주년 기념행사를 한 후 회장 이취임식 행사를 가졌다. 신임 김석찬 회장은 “공군 ROTC 장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아 역대 회장님들이 이루어 놓은 기반을 토대로 공군ROTC 장교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군전공상유공자회 2023년도 정기총회

공군전공상유공자회 (회장 박찬태)는 3월 16일 공군호텔에서 공본전직지원과장(이명진 대령), 공군사랑회장(서용길) 및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에 이어 회장 인사와 안건심의로 2022년도 사업보고와 결산안,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

박 회장은 “서로 배려와 양보하고 그냥 미소로 대답하는 소이부답(笑而不答)을 실천하면서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경오 회원, '나는 매일 하늘을 품는다' 출간

본회 부회장을 역임(2004~2018년)한 김경오 (예 대위, 여항 1기, 대한항공협회 명예 총재)회원이 최근 저자의 인생여정을 담은 '나는 매일 하늘을 품는다'를 출간하여 화제다. 저자는 1934년 평안북도 강계에서 태어나 1948년 여자항공병으로 공군에 입대한 후 1952년 단독비행에 성공하여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비행사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다.

1958년 미국 길보드 대학 유학시절 “비행기를 가지고 고국에 돌아가겠다”는 꿈을 품고 1963년 비행기를 무상으로 기증받아 마침내 그 꿈을 이룬다. 귀국 후 한국여성항공협회를 설립 후배 양성에 앞장선다. 하지만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여성운동에 힘쓰기 시작한다.

1981년~2015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최장수 위원, 1984년 국제존타 서울클럽 초대회장, 1988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1996년 자민련 부총재, 1999~2008년 대한항공협회 총재, 국제항공연맹 부총재를 지냈다. 암울했던 시대상황과 여성으로서 한계를 뛰어넘어 선각자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온 저자의 일대기는 오늘을 사는 젊은이에게는 꿈과 용기, 도전정신을 심어주며 동년배에게는 시대적 공감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공군학사장교회 창립 24주년 기념행사 및 2023년 정기총회

공군학사장교회 창립 24주년 기념행사 및 2023년 정기총회가 3월 31일 공군호텔에서 내빈 및 회원 약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정기총회에서는 정기이사회에서 의결되어 총회로 부의된 4개 안건인 2022년도 재무제표, 2023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차기회장 선임 인준안 및 정관회칙 개정안 의결이 있었으며 차기 회장에는 서영득 현 회장이 연임되었다. 이어 회장 인사말씀, 공군 참모차장 축사, 공군우주센터 소개 및 특별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공군부사관전우회 회장단 관제부대 위문

본회 산하단체인 부사관회(회장 차주성)회장단 12명은 3월 24일 공군 제8145부대(관제부대)를 방문하여 지휘관과 환담을 나누고 위문금 100만 원을 전달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공군사랑회 튀르키예 지진피해 성금 전달

공군사랑회(회장 서용길)는 3월 21일 서회장외 8명이 대한적십자사를 방문해 튀르키예 지진 참사 성금으로 600만 원을 전달했다. 이 모금액은 공군사랑회 회원들이 모금한 금액이다.

지난 2004년 4월 학사장교회 출신구성원을 모체로 창립된 공군사랑회는 그동안 회원영역을 넓혀 공군순직조종사부인회, 어려운 전우돕기 및 사회봉사활동 등을 펼쳐왔으며 현재까지 약 3억5천만원을 후원금으로 지원했다.//



공군,정책발전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공군은 1월31일 공군호텔에서 정상화 참모총장 주관으로 정책발전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공군정책발전자문위원회는 대국민 소통 강화, 공군 정책의 전문성 증진 등을 위해 2001년 6월 발족했다. 현재는 정책, 기획관리, 인사, 정보작전, 군수, 정보화, 공보정훈

등 7개 분야에서 83명의 자문위원이 활동 중이다. 이날 회의에는 70여 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자문위원들은 올해 공군 주요 정책 현안을 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또 정책, 인사, 기획관리, 정보화 등 각 분야에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16명의 자문위원을 새로 위촉했다.//

'2022년 공군을 빛낸 인물' 시상식



공군은 1월 30일 공군본부에서 정상화 참모총장 주관으로 '2022년 공군을 빛낸 인물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22회를 맞이한 '공군을 빛낸 인물'은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으로 공군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단체를 뽑는 제도다.

이번에는 △전투력 발전 △조직 운영 발전 △신지식·정보화 △희생·봉사 △체육·문화 △협력 △특별 등 7개 부문에서 개인 3명과 단체 4개 팀이 선정돼 상패·상금을 받았다.

전투력 발전 부문에서는 한국형 전투기 KF-21 최초 비행 성공에 일조한 52시험평 가전대(52전대)가 선정됐다.

조직 운영 발전 부문은 8789부대 차량운전담당 박종구 상사(진)가, 신지식·정보화 부문은 가상현실·모션체어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공간정위상실(비행작각) 훈련 시뮬레이터 체계를 자체 개발한 공군사관학교 교수부 김성호 소령이, 희생·봉사 부문에는 교육사령부 예하 군수1학교가, 체육·문화 부문은 공군력과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린 53특수비행전대 블랙이글스가, 협력 부문은 공군 송유관 안전관리 인프라를 구축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선정됐다.

특별 부문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한 스콧 플로이스(공군중장) 미 7공군사령관이 받았다.//

블랙이글스, 2023 호주 국제에어쇼 종합최우수상 수상



3월 1일(현지시간) 호주 하늘에 태극문양이 새겨졌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Black Eagles)가 '2023 호주 애벌론 국제에어쇼'에서 선보인 고난도 공중기동 모습 중 하나다.

블랙이글스는 이날 애벌론 에어쇼에서 30분간 창의적이고 화려한 24개 특수비행을 펼치며 대한민국 공군의 자부심을 드높였다. T-50B 편대가 창공에 태극문양을 그리자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다.

적도 이남에서 첫 비행 데뷔를 치른 블랙이글스는 에어쇼가 본격 문을 연 전날엔 오프닝 단독 비행을 맡았다.

블랙이글스가 해외 에어쇼에서 개막 비행을 장식한 것은 이번이 최초이며, 종합 최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전 세계에 대한 민국과 공군의 위상을 높였다.//

공사 71기 졸업 및 임관식



공군사관학교(공사)는 3월8일 학교 성무연병장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제71기 생도 졸업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졸업한 190명(외국군 수학생도 4명은 본국 임관)은 4년간 고강도 군사 훈련과 인공위성 연구, 비행체 설계·실습 등 항공우주 특성화 교육을 받으며 정예 장교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다.

올해 졸업 및 임관식에는 가족·친지, 내빈을 포함한 16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 태평양공군사령관, 미 공군사관학교장, 미 7공군사령관 등 미 공군 주요 지휘관의 축하 메시지 영상이 전달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신임 장교들은 2019년 입학해 4년간 강도 높은 군사훈련과 생활·학위교육을 이수해 군사학사와 함께 전공별로 문학사, 이학사, 공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공군, 미래 국방기술 전략 포럼 개최



공군은 1월31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홀에서 연세대와 함께 '2023 미래 국방기술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정상화 공군참모총장과 조형희 ASTI(항공우주전략연구원) 원장이 공동 주관한 포럼은 '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우주 분야에서 공군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가·국방 우주력 강화를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뒀다. 포럼에는 국방 분야 주요 인사, 군·산·학·연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했다.

ASTI 고문을 맡은 최차규 전 공군참모총장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이준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 최성환(대령) 공군본부 우주센터장, 김경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위성체계단장, 박상영 ASTI 부원장 등이 나섰다. 이들은 미래 신(新)성장동력인 항공·우주산업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대한민국의 우주력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군·학계·기업이 긴밀히 연계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 '공중급유 비행훈련' 첫 공개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우리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가 공중급유를 받으며 고강도 비행훈련을 전개했다.

공군은 2월 21일 "F-35A와 KC-330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를 투입한 '공중급유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훈련 모습을 공개했다. 공중급유훈련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훈련 모습이 공개된 것은 F-35A가 전력화된 2019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F-35A는 최대 속력 마하 1.8로 비행하고, 반경 1093km에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다. 또 공대공미사일과 함동지격탄

(JDAM), 소구경 정밀유도폭탄(SDB) 등 강력한 무장을 갖추고 있다. 고도의 스텔스 기능과 전자전 수행 능력 등 통합항전시스템도 구비해 적에게는 '악몽' 같은 존재다.//